

2014. 3. 27

한국의 경제기적 : 지난 50년 향후 50년



목 차

- I. 지난 50년간 경제 사회 발전과 성공요인
- II. 한국 경제의 현주소: 도전과 과제
- III. 21세기 한국의 비전: 아시아 경제 문화 중심지
- IV. 중심지가 되기 위한 한국의 강점
- V. 중심지가 되기 위해 보강해야 할 과제
- VI. 맺음말

I. 지난 50년간 경제 사회 발전과 성공요인

1. 지난 50년간 경제 사회 발전

2. 성공요인

3

I. 지난 50년간 경제 사회 발전과 성공요인

1. 지난 50년간 경제 사회 발전

- 한국은 지난 50년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대단한 경제발전을 이룩했음.
 - 1인당 국민소득(불변가격 기준): 1962년 1,176달러에서 2010년 1만 6219달러로 14배 증가 - 이는 같은기간 세계 평균이 2,548달러에서 9,175달러로 2.3배 증가한 데 비하면 놀라운 성과.
 - GDP 규모 면의 성장은 더욱 놀라움. 1962년 311 억 달러에서 2010년 약 1조 달러로 26배 증가. 동기간 세계전체 GDP는 약 8조 달러에서 약 41조 달러로 5배 증가.

한국과 세계의 국민소득 성장 추이

(단위: 2000년 불변가격 기준, 달러, 억 달러)

		1962(A)	1970	1980	1990	2000	2010(B)	(B)/(A)
1인당 국민소득	한국	1,176	1,994	3,358	6,895	11,347	16,219	14
	세계	2,548	3,292	3,986	4,607	5,284	9,175	2.3
GDP	한국	311	636	1,280	2,956	5,334	10,149	26
	세계	79,874	121,526	177,224	243,983	323,293	414,074	5

자료: World Data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4

I. 지난 50년간 경제 사회 발전과 성공요인

-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세계경제에서 한국의 위상 또한 크게 상승.
 - GDP순위로 한국은 1962년 37위에서 2010년 15위까지 상승.

1962년과 2010년 세계 GDP 순위와 규모

(단위: 1억 미달러)

1962년 세계 GDP 순위			2010년 세계 GDP 순위		
순위	국가	규모	순위	국가	규모
1	미국	5,797	1	미국	144,471
2	영국	806	2	중국	59,305
3	프랑스	763	3	일본	54,884
4	일본	607	4	독일	32,589
5	이탈리아	504	5	프랑스	25,490
6	중국	465	∴	∴	∴
11	스웨덴	175	15	한국	10,149
∴	∴	∴	16	네덜란드	7,742
37	한국	27	17	터키	7,311

자료: World Data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I. 지난 50년간 경제 사회 발전과 성공요인

- 세계적 위상은 비단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외교,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결실을 거두었음.
 - 민주주의 발전지수에 있어서도 선진국 수준.

한국의 이코노미스트 민주주의 지수

국가	노르웨이	독일	영국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	이스라엘	인도	중국	북한
민주주의 지수	9.93	8.34	8.21	8.13	8.11	8.08	7.88	7.74	7.57	7.53	7.52	3.00	1.08
전체순위	1	14	16	20	21	23	28	32	35	37	38	142	167
체제유형	완전민주주의						불완전민주주의				비민주주의		

자료: Economist Intelligence Unit, Democracy Index, 2012, pp. 3-8.

I. 지난 50년간 경제 사회 발전과 성공요인

2. 성공요인 - 모두 여섯개로 요약됨

(1) 시장경제체제의 선택과 발전

- 시장경제는 사유재산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기책임하에 각자가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체제.
 - 결과: 경제행위자들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며, 기업인들의 역할 증진으로 기술 및 상품혁신이 진작되어 경제발전이 가속.
- 한국은 건국 초기 가히 전세계를 휩쓴 사회주의 사조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여 이를 꾸준히 발전시켜온 결과, 오늘날의 번영을 이룩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
 - 1960년대 초반 남한의 1인당 GDP는 91.5달러로 북한의 150.8달러에 비해 2/3이하 수준에 머물렀지만, 반세기후 남한의 1인당GDP는 18,300달러로 북한의 980달러에 비해 약 20배에 달해.

남북한의 1인당 GDP 비교

(단위: 경상가격 기준, 미 달러)

	1960~1964	2005~2009
남한(A)	91.5	18,300
북한(B)	150.8	980
(A)/(B)	2/3	20

자료: World Data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통계청; 박진, 「북한재정의 현황과 추이」, KDI 정책보고서 94-23, 한국개발연구원, 1994.

7

I. 지난 50년간 경제 사회 발전과 성공요인

(2) 대외지향적 발전전략

- 한국이 택한 대외지향적 발전전략의 이점: 비교우위에 입각한 분업, 규모경제활용가능, 국제경쟁을 통한 상품 및 기술혁신의 가속.
 - 이런 이점으로 말미암아 대외 지향적 발전전략을 채택한 국가들은 대내 지향적 발전전략을 채택한 국가들에 비해 월등한 경제성장 달성.
- 한국은 발전 초기부터 대체로 대외지향적 발전전략의 기초 유지.
 - 1960년대: 수출장려정책.
 -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 1980~90년대: 자발적 무역자유화 노력으로 시장 다변화정책.
 - 2000년대 이후: 적극적인 FTA 확대로 해외시장 확대정책.

대외 대내지향 발전전략 차이에 따른 경제성장률 비교, 1965~2011

대외지향적 발전국가 (단위: %)		대내지향적 발전국가 (단위: %)	
국가	GDP 성장률	국가	GDP 성장률
싱가포르	8.1	인도	5.2
한국	6.9	파키스탄	5.2
말레이시아	6.4	멕시코	3.9
태국	6.2	페루	3.5
홍콩	5.9	아르헨티나	2.7

자료: World Data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8

I. 지난 50년간 경제 사회 발전과 성공요인

(3) 인적자본의 개발과 경제성장

- 교육과 훈련을 통한 인적 자본의 확대는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구성원간 상호상승작용으로 경제성장을 수요 및 공급 양 측면에서 촉진 (T. W. Schultz).
- 한국은 교육을 중시 해온 전통에 힘입어 경제발전 초기부터 다른 나라보다 더 적극적으로 인적 자본을 개발.
- 건국 초기 시행된 토지개혁도 인적 자본 축적 가속에 큰 기여.
 - 경제발전 초기부터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선진국 수준의 취학을 조기 달성.
 - 이는 중·고등교육 취학을 증가로 이어졌고 정부도 늘어나는 교육수요에 부응하여 꾸준히 교육투자 확대.
 - 뿐만 아니라 대학원 진학률과 유학 등의 교육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

초등학교 취학률 비교

(단위: %)

	한국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북미	유럽	개도국	선진국	세계
1965	92.0	60.3	36.0	64.6	99.4	92.3	54.6	91.5	66.5
1990	100.0	80.5	52.2	87.1	100.0	88.9	76.5	91.6	79.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9

I. 지난 50년간 경제 사회 발전과 성공요인

(4) 기술혁신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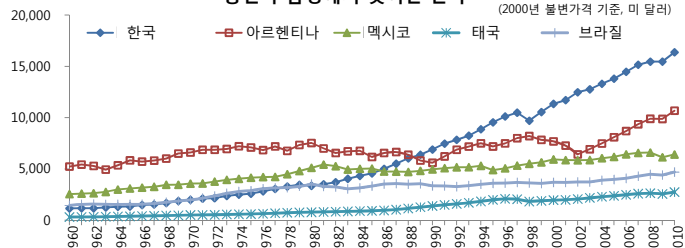
- 슈페터(J. A. Schumpeter), 쿠즈네츠(S. Kuznets) 등의 연구는 기술발전이 경제성장의 핵심임을 지적.
- 한국은 60~70년대 정부 주도로, 80년대부터는 민간주도로 기술발전에 꾸준히 매진해온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결실을 얻을 수 있었음.
 -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구조변경달성.
 - 기술발전은 80~90년대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크게 기여. (김동석 외, 『한국경제의 성장요인 분석』)
 - 뛰어난 기술혁신 역량은 한국이 중진국합정을 극복하는데 결정적 역할.

R&D지출 비율 (% GDP)

	1996~2007
한국	2.55
아르헨티나	0.44
멕시코	0.39
태국	0.22
브라질	0.97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난 한국

(2000년 불변가격 기준, 미 달러)



자료: World Data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10

I. 지난 50년간 경제 사회 발전과 성공요인

(5)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은 효율적 자원배분과 소득분배의 안정, 그리고 국제수지 균형 유지면에서 극히 중요.
- 한국은 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으로 거시경제 안정을 일시적으로 포기했으나 80년대 들어 강력한 재정긴축정책과 통화관리를 통해 거시경제 안정을 달성. 그 결과 높은 성장 지속 성공.

주요국가들의 연평균 물가상승률과 소득수준 비교

(단위: % 미 달러)

	1980~90년 연평균 물가상승률	1978~79년 1인당 GDP 평균(A)	1990~91년 1인당 GDP 평균(B)	(B)/(A)
한국	8.4	3,377	7,185	2.13
싱가포르	2.4	8,379	16,064	1.92
대만	4.4	8,044	13,559	1.69
터키	51.1	2,701	3,431	1.27
멕시코	65.2	4,558	4,958	1.09
브라질	613.8	3,249	3,350	1.03
아르헨티나	724.6	7,059	5,893	0.83

자료: World Data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National Statistics, Republic of China, Quarterly National Economic Trends, Vol. 137.

11

I. 지난 50년간 경제 사회 발전과 성공요인

(6) 한미동맹

- 긴밀한 한미동맹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한국 경제성공의 주요요인
 - 한미동맹을 통해 한국은 한반도 주변안정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국방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었음.
 - 전후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많은 물자와 재정적 원조를 받았고 이를 통해 경제발전 착수가 가능했음.
 - 그밖에 인적자원개발, 정책자문, 경제위기사 원조, 국제시장 접근 등 많은 도움을 받아 왔음.

남북한 국방비 지출 추이 비교

(단위: 억 달러)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한국	지출금액	1.1	3.2	9.6	37.0	43.0	96.8	150.9	162.4	211.2
	% GDP	3.6	3.7	4.5	2.8	4.5	36.	2.9	2.8	2.6
북한	지출금액	6.1	9.9	20.2	33.9	35.0	49.6	62.4	50.0	-
	% GDP	26.1	24.9	21.6	25.1	23.1	21.4	28.0	29.8	-

자료: 국방부, 「국방백서」, 2010;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2

II. 한국경제의 현주소: 도전과 과제

1. 경제성장의 급격한 둔화
2. 실업 증가 (고용율 저하)
3. 소득분배 악화
4.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5. 신기술혁신 시대의 도래
6. 중국경제의 부상
7. 다극화 시대의 도래

13

II. 한국경제의 현주소: 도전과 과제

1. 경제성장의 급격한 둔화

- 아시아 외환위기(1997-1998) 이전, 한국은 30년간 이상 연평균 8%에 가까운 경제 성장 달성.
- 외환위기 이후 떨어지기 시작한 성장추세는 2000년대에 들어와 4%대에도 하락하다가 최근에는 2-3%대로 추락.
- 향후 전망은 1%대로까지 떨어지는 것을 예고.
 - KDI : 2010년대 3.5~3.8%, 2020년대 2.6~2.8%, 2030년대 1.6~2.2%.
 - OECD: 2012~17년 3.4%, 2019~30년 2.4%, 2031~50년 1.0%.

한국의 경제성장률(1961~2012)



자료: World Data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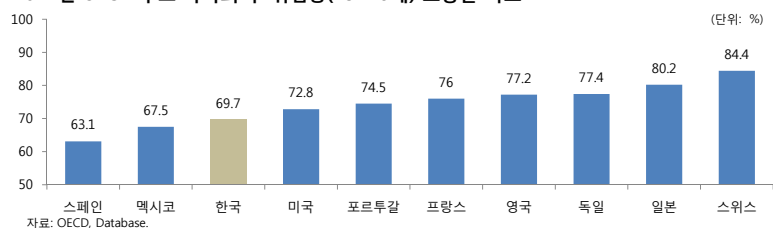
14

II. 한국경제의 현주소: 도전과 과제

2. 실업 증가

- 2013년 1월 현재 실업률은 3.4%로 미국 8.5%, 프랑스 10.9%, 일본 4% 등에 비해 매우 양호해 보이지만, 전체 고용률은 63.3%로 미국 66.6%, 프랑스 64%에 비해 낮음.
 - 일부 연구기관 및 학자는 2011년 실질 실업률은 11.3%로 공식 실업률에 비해 훨씬 높게 나오는 것으로 추정.
- 여러 계층 가운데 특히 청년층의 저고용률 문제가 가장 심각.
 - 2011년 15~24세 청년 고용률은 23.1%로 미국의 45.5% 영국의 50.1% 프랑스의 29.9%보다 훨씬 낮음.
 - 2011년 주 취업층의 고용률은 일본 80.2%, 포르투갈 74.5%보다 낮은 69.7%로 34개국 중 25위에 불과.

2011년 OECD 주요 국가의 주 취업층(25~29세) 고용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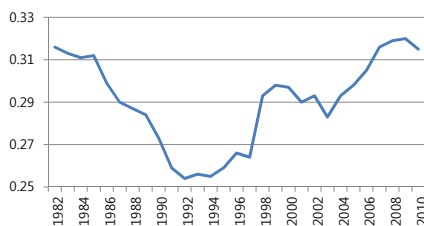
15

II. 한국경제의 현주소: 도전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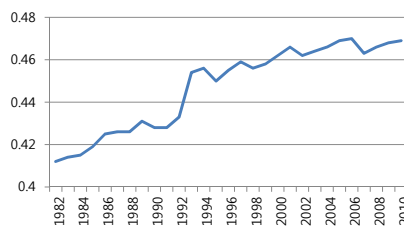
3. 소득분배 악화

- 1970년대 중반 이후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악화된 한국의 소득분배는 80년대부터 추진된 안정화 시책과 임금상승의 영향으로 꾸준히 개선되었음. 그러나 1992년 이후 계속 악화되는 추세인데, 가장문제가 되는 것은 그 속도가 급격하다는 것임.
 - 2000~2010년 지니계수 상승률: 한국 6% vs 미국 1.5%.
- 한국 소득분배 악화의 주요 요인: 제조업 생산기지의 세계화, 대기업의 기술 및 자본 집약적 수출 특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노후대책 없는 퇴직인구의 증가.

한국의 지니계수



미국의 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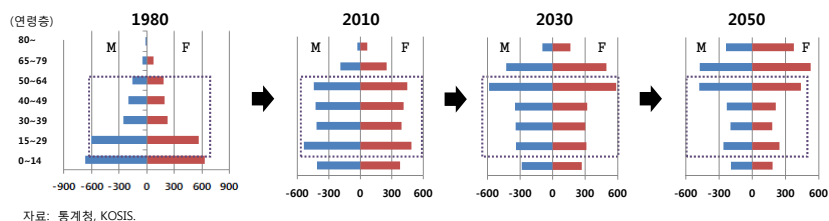
16

II. 한국경제의 현주소: 도전과 과제

4.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 생산가능인구는 2012년 73.1%를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하여 2039년 57%, 2060년 49.7%까지 줄어듦 전망.
- 저출산·고령화가 맞물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GDP 감소와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건정성 악화 초래.
 - 이런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 하려면 여성인력의 저조한 노동시장 참여, 생산인구의 과도한 조기퇴출, 청년인력 개발 및 활용에 방해가 되는 징병제도 등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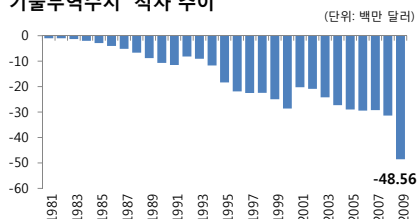
17

II. 한국경제의 현주소: 도전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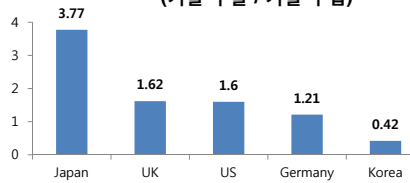
5. 새로운 기술시대의 도래

- 한국은 기술혁신 분야에서 그간 잘 대응해왔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를 고려하면 보다 근본적인 대안 강구가 필요.
 - 전세계 산업화로 말미암은 에너지 희소성 증대.
 - 아직도 계속 확대되는 기술무역수지 적자.
 - BT, NT와 같은 신기술분야 경쟁력 미흡.
 - 대기업 중심으로만 진행되는 기술개발.
 - 외국과의 기술개발 협력 부재.

기술무역수지 적자 추이



2009년 각국 기술무역수지 비율 비교 (기술 수출 / 기술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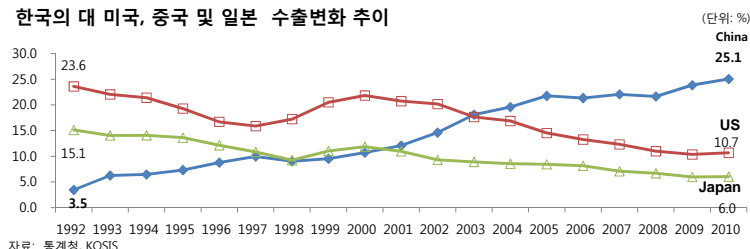
18

II. 한국경제의 현주소: 도전과 과제

6. 중국경제의 부상

- 한국은 지금까지는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으로 혜택을 누려왔음.
 - 대중 수출비중은 1992년 3.5%에서 2010년 25.1%로 증가하여 미국의 10.7%, 일본의 6.0%를 넘어 이제 중국은 한국의 최대수출대상국.
- 그러나 이제는 한중간에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IT, 철강, 조선 등 주력수출산업에서 경쟁관계 발생.
 - 많은 국내 산업의 공동화.
 - 중국경제 급격한 성장 둔화 시 한국경제 동반하락 가능성 .
 - 중국 부상에 따른 동북아 국제세력균형의 재편가능성과 이에 따른 통일문제의 복잡성 증대.

한국의 대 미국, 중국 및 일본 수출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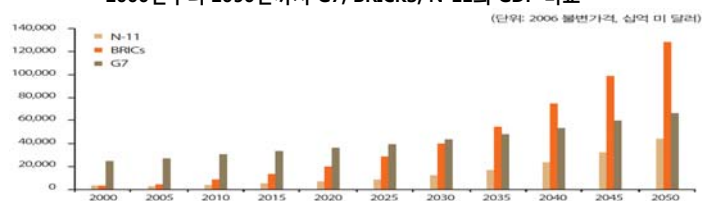
19

II. 한국경제의 현주소: 도전과 과제

6. 다극화시대의 도래

- 중국의 부상에 더해 세계경제 및 정치가 다극화되고 있다는 것도 새로운 큰 도전.
 - 골드만삭스는 세계경제성장의 축이 브릭스와 더불어 한국을 비롯한 여러 신흥국들이 포함된 '넥스트 일레븐'으로까지 확대될 것을 전망.
 - HSBC는 2010년 현재 선진국 시장의 절반에 못 미치는 신흥시장 규모가 2050년경에 역전될 것을 전망.
- 세계경제의 다극화는 전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줄 것이지만, 국제규범의 다양화 및 국제적 합의 도출의 어려움, 그리고 안보불안 등 여러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가능성 높음.
- 결론: 한국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다극화시대를 맞이하여 여러가지 새로운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2000년부터 2050년까지 G7, BRICKS, N-11의 GDP 비교



자료: D. Wilson and A. Stupnytska, "The N-11: More Than an Acronym," Global Economics Paper, No.153, Goldman Sachs, 2007, p. 4.

20

Ⅲ. 21세기 한국의 비전: 아시아의 으뜸가는 경제 및 문화중심지

1. 경제 및 문화 중심지의 정의
2. 경제 및 문화 중심지의 유형
3. 중심지의 주요혜택
4. 성공요건

21

Ⅲ. 21세기 한국의 비전: 아시아의 으뜸가는 경제 및 문화중심지

1. 경제 및 문화 중심지의 정의

- 한국의 당면과제와 도전을 가장 잘 극복하기 위해 제안하고자 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한국이 약 20년 내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으뜸가는 경제 및 문화 중심지로 부상하는 것임.
 - 경제 및 문화 중심지란 주변지역 또는 전세계에 고부가가치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 그러한 중심지는 시장경제와 개방경제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
 - 따라서 재화와 용역의 자유무역을 최대한 추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생산요소의 최대한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

22

Ⅲ. 21세기 한국의 비전: 아시아의 으뜸가는 경제 및 문화중심지

2. 경제 및 문화 중심지의 유형

▪ 경제 및 문화 중심지 분류

- (1) 도시국가형 (small city state)
- (2) 강소국형 (small-size nation state)
- (3) 규모가 있는 국가 내의 대도시형 (large city within a nation)
- (4) 이스라엘 (특수한 유형)
 - 이스라엘은 특수한 건국배경과 주변국가와의 종교 및 문화 차이로 말미암아 주변지역 및 국가보다는 세계를 상대로 중심지 기능 수행.

23

Ⅲ. 21세기 한국의 비전: 아시아의 으뜸가는 경제 및 문화중심지

- 아래에 표기된 10대 경제 및 문화 중심지는 주변지역 국가 및 세계를 상대로 각각 특화된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

10 대 중요 중심지의 핵심 특화 기능 분야

중심지	핵심 기능
1. 싱가포르	무역, 금융, 의료서비스, 교육, 관광
2. 홍콩	무역, 물류, 금융, 교육, 정보, 미디어, 관광
3. 룩셈부르크	금융, e비즈니스
4. 네덜란드	무역, 물류, 금융, 고급 음식료품 제조, 국제협력/외교
5. 스위스	금융, 교육, 정밀기계, 정밀화학, 제약산업, 관광, 국제협력/외교
6. 런던 대도시권	금융, 교육, 문화, 관광, 디자인, 정보, 미디어
7. 뉴욕 대도시권	금융, 정보, 미디어, 교육, 문화, 관광, 국제협력/외교
8. 샌프란시스코/실리콘밸리 대도시권	R&D, 기술, 창업, 금융, 교육, 관광, 문화
9. 보스턴 대도시권	교육, R&D, 금융, 의료서비스
10. 이스라엘	IT, 생명과학, 창업, 고부가가치 농업, 항공기 개조 및 생산

24

Ⅲ. 21세기 한국의 비전: 아시아의 으뜸가는 경제 및 문화중심지

3. 중심지의 주요 혜택

- 경제 및 문화중심지가 제공하는 주요혜택.
 - (1) 높은 소득수준
 - (2) 경제성장 지속
 - (3) 낮은 실업률
 - (4) 높은 삶의 질과 교육 및 문화생활
 - (5) 저비용으로 사회안정과 국가안보 확보 가능

- 이상 다섯가지 주요 혜택은 모두 현재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도전과 과제해결에 도움이 됨.

25

Ⅲ. 21세기 한국의 비전: 아시아의 으뜸가는 경제 및 문화중심지

(1) 높은 소득수준

- 모든 중심지는 주변 국가나 지역에 고부가가치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매우 높음.

중요 경제 및 문화 중심지와 주변지역의 1인당 GDP 비교(2011)

(단위: 경상가격 기준, 미 달러)

중심지(A)		주변지역				평균(B)	A/B
		1	2	3			
1. 싱가포르	46,241	9,977	4,972	3,495	6,148	7.5	
2. 홍콩	34,457	5,445	2,370	20,797	9,537	3.6	
3. 룩셈부르크	115,038	46,663	44,060	42,377	44,367	2.6	
4. 네덜란드	50,076	44,060	42,377	39,038	41,825	1.2	
5. 스위스	83,383	36,103	44,060	42,377	40,847	2.0	
6. 런던 대도시권	57,020	-	-	-	33,397	1.7	
7. 뉴욕 대도시권	67,166				48,112	1.4	
8. 샌프란시스코/실리콘밸리 대도시권	76,047				48,112	1.6	
9. 보스턴 대도시권	70,916				48,112	1.5	
10. 이스라엘	31,282	2,781	4,666	9,413	5,620	5.6	

자료: World Data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OECD, OECD Statistics;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UK Statistics Authority,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주: 싱가포르 주변국가 1. 말레이시아, 2. 태국, 3. 인도네시아; 홍콩 주변국가 1. 중국, 2. 필리핀, 3. 대만; 룩셈부르크 주변국가 1. 벨기에, 2. 독일, 3. 프랑스; 네덜란드 주변국가 1. 독일, 2. 프랑스, 3. 영국; 스위스 주변국가 1. 이탈리아, 2. 독일, 3. 프랑스; 이스라엘 주변국가 1. 이집트, 2. 요르단, 3. 레바논; 런던 주변지역의 평균은 영국의 2011년 1인당 GDP로 대체했으며, 미국 대도시권의 주변지역 평균 GDP는 전 미국의 2011년 1인당 GDP로 대체했음.

26

III. 21세기 한국의 비전: 아시아의 으뜸가는 경제 및 문화중심지

(2) 경제성장 지속

- 중심지는 개방된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경제를 운영하는 까닭에 기술혁신이 빨라 대체로 높은 성장 유지.

주요 경제 및 문화 중심지와 주변지역의 경제성장률 비교(2000~2011)

(단위: %)

중심지(A)		주변지역				A/B
		1	2	3	평균(B)	
1. 싱가포르	5.9	5.0	4.0	4.2	4.4	1.3
2. 홍콩	4.5	10.2	4.7	6.4	7.1	0.6
3. 룩셈부르크	3.1	1.6	1.3	1.4	1.4	2.2
4. 네덜란드	1.6	1.3	1.4	1.9	1.5	1.0
5. 스위스	1.9	0.7	1.3	1.4	1.1	1.7
6. 런던	3.0	-	-	-	1.9	1.6
7. 뉴욕 대도시권	1.1	-	-	-	1.6	0.7
8. 샌프란시스코/실리콘밸리 대도시권	2.0	-	-	-	1.6	1.3
9. 보스턴 대도시권	1.4	-	-	-	1.6	0.9
10. 이스라엘	3.8	4.6	5.8	8.0	6.1	0.6

자료: World Data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OECD, OECD Statistics;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UK Statistics Authority,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주: 싱가포르 주변국가 1. 말레이시아, 2. 태국, 3. 인도네시아; 홍콩 주변국가 1. 중국, 2. 필리핀, 3. 대만; 룩셈부르크 주변국가 1. 벨기에, 2. 독일, 3. 프랑스; 네덜란드 주변국가 1. 독일, 2. 프랑스, 3. 영국; 스위스 주변국가 1. 이탈리아, 2. 독일, 3. 프랑스; 이스라엘 주변국가 1. 이집트, 2. 요르단, 3. 레바논. 런던 주변지역의 평균은 전 영국의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임. 뉴욕, 샌프란시스코/실리콘밸리, 보스턴 대도시권 성장률은 2001~2011년 수치이고 미국 각 대도시권의 주변지역 평균 수치는 전 미국의 2001~2011년 성장률임.

27

III. 21세기 한국의 비전: 아시아의 으뜸가는 경제 및 문화중심지

(3) 낮은 실업률

- 빠른 성장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 낮은 실업률 유지.

주요 경제 및 문화 중심지와 주변지역의 실업률 비교(2011)

(Unit: %)

중심지(A)		주변지역				A/B
		1	2	3	평균(B)	
1. 싱가포르	2.9	3.4(2010)	0.7	6.6	3.6	0.8
2. 홍콩	3.4	4.1	7.0	4.4	5.2	0.7
3. 룩셈부르크	4.9	7.1	5.9	9.3	7.4	0.7
4. 네덜란드	4.4	5.9	9.3	7.8	7.7	0.6
5. 스위스	4.1	8.4	5.9	9.3	7.9	0.5
6. 런던	9.7	-	-	-	7.8	1.2
7. 뉴욕 대도시권	8.3	-	-	-	8.9	0.9
8. 샌프란시스코/실리콘밸리 대도시권	10.4	-	-	-	8.9	1.2
9. 보스턴 대도시권	10.7	-	-	-	8.9	1.2
10. 이스라엘	5.6	9.0(2010)	12.9	9.0(2007)	10.3	0.5

자료: World Data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OECD, OECD Statistics;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UK Statistics Authority,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주: 싱가포르 주변국가 1. 말레이시아, 2. 태국, 3. 인도네시아; 홍콩 주변국가 1. 중국, 2. 필리핀, 3. 대만; 룩셈부르크 주변국가 1. 벨기에, 2. 독일, 3. 프랑스; 네덜란드 주변국가 1. 독일, 2. 프랑스, 3. 영국; 스위스 주변국가 1. 이탈리아, 2. 독일, 3. 프랑스; 이스라엘 주변국가 1. 이집트, 2. 요르단, 3. 레바논. 런던 주변지역의 평균실업률은 전 영국 수치이고 미국 각 대도시권의 주변지역 평균 실업률은 전 미국의 실업률임.

28

Ⅲ. 21세기 한국의 비전: 아시아의 으뜸가는 경제 및 문화중심지

(4) 높은 삶의 질과 교육 및 문화생활

- 중심지는 높은 소득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반영하여 높은 삶의 질에 대한 수요가 왕성할 뿐만 아니라 이를 충족시키는데도 매우 성공적.

경제 및 문화 중심지의 삶의 질

중심지	인간개발지수 순위 (2013)	삶의 질 순위 (2005)
1. 싱가포르	18	11
2. 홍콩	13	18
3. 룩셈부르크	26	4
4. 네덜란드	4	16
5. 스위스	9	2
6. 영국	26(UK)	29(UK)
7. 이스라엘	16	38

자료: UNDP(www.undp.org)
 주: 인간개발지수는 186개국, 삶의 질 순위는 111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것임.

29

Ⅲ. 21세기 한국의 비전: 아시아의 으뜸가는 경제 및 문화중심지

(5) 저비용으로 사회안정과 국가안보 확보가능

- 중심지는 자국민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또는 국가들에게 긴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까닭에 이들 역시 중심지의 안정과 안보에 많은 도움을 제공. 이와 같은 도움은 중심지로 하여금 자국민에게 안보를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제공.

- 예:

- ① 홍콩은 1997년 중국에 반환될 당시 기존 홍콩으로부터 많은 경제적 혜택을 누리던 영국과 외국의 대중국 투자창구로 활용하는 중국이 향후 50년간 홍콩의 경제·사회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
- ② 영국과 미국은 싱가포르가 그들의 대아시아 거점투자지역 역할을 하는 것을 고려하여 싱가포르의 안보를 위해 많은 협조를 제공. 또한 미국은 싱가포르가 미해군의 작전요충지임을 감안하여 싱가포르와 긴밀한 협조 유지.
- ③ 스위스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예금과 투자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평화 유지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결과 세계 여러 나라들이 1815년 빈 회의에서 합의한 스위스의 중립국 지위보존을 위해 최대한 협조.

30

Ⅲ. 21세기 한국의 비전: 아시아의 으뜸가는 경제 및 문화중심지

4. 성공요건

- (1) 경쟁력있는 인적자원 확보와 효율적 활용
 - 고등교육기관의 질적 향상과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인재 양성.
 -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통한 해외 우수인력 흡수.
- (2)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확립
 - 경제활동 규제-열거주의(positive list system)보다 포괄주의(negative list system)로.
 - 조세제도의 효율성 제고: 가급적 낮은 세율, 세수는 간접세보다 직접세로 충당, 세율은 누진세보다 비례세로 하고, 내·외국인 무차별 과세.
 - 노동시장내의 독과점 행위 불허로 노동시장 유연성 최대 확보.
- (3) 무역 및 외환 자유화
 - 상품무역 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도 개방.
 - 외환시장의 자유화를 통한 경상거래 및 자본거래 자유화, 통화의 태환성 최대확보.

31

Ⅲ. 21세기 한국의 비전: 아시아의 으뜸가는 경제 및 문화중심지

- (4) 생활편익과 좋은환경
 - 모든 재화의 수입자유화를 통한 생필품 가격의 안정.
 - 높은 수준의 문화 예술 및 교육시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공공질서 확보.
- (5) 효율적인 인프라
 - 많은 거주자들이 모국어 외에 최소 몇 개의 언어를 구사하는 실력 배양.
 - 효율적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과 언론자유 보장.
 -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체계.
- (6) 예측 가능한 경제정책
 - 정부의 안정적인 거시정책(물가안정 등) 및 경제정책의 일관성 확보.
- (7) 유리한 국제환경
 - 넓은 배후시장.
 - 주변국의 정치안정.

32

IV. 중심지가 되기 위한 한국의 강점

- | | |
|---------------|-------------------|
| 1. 우수한 인적자원 | 6. 수준 높은 의료산업 |
| 2. 고도의 산업기술 | 7. 디자인강국 |
| 3. 세계적인 무역강국 | 8. 세계로 뻗어나가는 문화산업 |
| 4. 아시아의 교통요충지 | 9. 잠재력이 풍부한 관광산업 |
| 5. 부상하는 금융산업 | 10. 국제협력 및 외교 중심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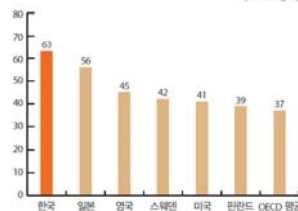
33

IV. 중심지가 되기 위한 한국의 강점

1. 우수한 인적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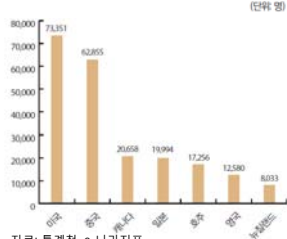
- 한국의 대학교육 이수율은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매우 높음.
 - 25~64세 연령층의 경우 39%로 미국, 일본 다음 높음.
 - 25~34세 연령층의 경우 63%로 가장 높음.
- 현재 외국에 많은 유학생들을 보냄.
 - 2012년 4분기 미국대학 내 총 한국인 유학생 수는 7만 2,295명으로 중국, 인도 다음 높았음.
 - 2011년 중국에서 수학중인 한국인 유학생은 6만 2,442명으로 어느 나라보다 많았음.

국가별 청년층의 대학교육 이수율(2009)
(25~34세, %)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1: OECD Indicators, 2011, p.40.

해외 한국인 유학생 국가별 현황(대학, 2012/4)
(단위: 명)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

34

IV. 중심지가 되기 위한 한국의 강점

2. 고도의 산업기술

- 2012년 IMD 국가경쟁력지수에서도 볼 수 있듯 한국은 산업기술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 한국의 과학인프라: 미국, 일본, 독일, 이스라엘 다음으로 세계 5위.
 - 기업 차원의 기술 흡수력: 세계 9위(아시아 국가 중 3위인 일본 다음으로 높음).
 - 기업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 세계 2위(1위:이스라엘).

한국의 신성장기술 분야 순위

순위	나노기술 특허등록* (2004~2006년)	신재생에너지 특허등록** (2007~2009년)	바이오기술 관련 기업 수*** (2009년)
1	미국	미국	미국
2	일본	일본	스페인
3	독일	독일	프랑스
4	한국	영국	일본
5	프랑스	한국	한국
6	영국	덴마크	독일
7	네덜란드	프랑스	호주
8	캐나다	중국	영국
9	스위스	스페인	스위스
10	이스라엘	이탈리아	네덜란드

* OECD,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09, 2009, p. 71.
 ** OECD,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11, 2011.
 *** OECD,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11, 2011.

- 신성장기술 개발분야에서도 최근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음.

- 나노 소재기술 개발은 세계 4위로 2008년 세계최고인 미국의 기술력 대비 75%까지 향상.
- 한국기업의 바이오 기술개발 지출비용은 약 9억 5,700만 달러로 미국, 프랑스, 독일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

35

IV. 중심지가 되기 위한 한국의 강점

3. 세계적인 무역강국

- 한국은 2011년 세계 수출액이 약 5,550억 달러로 세계순위 7위, 전체무역액 규모가 약 1조 달러로 9위를 차지.
- GDP 대비 무역액 규모는 약 102%로 OECD평균의 약 두 배.

한국과 주요 중심국가들의 GDP 대비 무역규모 비교

(단위: %)

	무역액/GDP		
	1990(A)	2010(B)	(B)/(A)
홍콩	253	440	1.74
싱가포르	345	394	1.14
룩셈부르크	190	299	1.57
네덜란드	109	149	1.37
한국	57	102	1.79
스위스	71	96	1.35
이스라엘	80	72	0.90
OECD 평균	35	50	1.43

자료: World Data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36

IV. 중심지가 되기 위한 한국의 강점

- 한국은 2012년 말 현재 총 47개국과 FTA 체결.
 -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EU 및 미국과 FTA 체결.
 - 이는 일본(총 15개국), 중국(총 15개국)과 비교해 월등히 많음.

한국, 중국, 일본의 FTA 협상 추진 현황(2013년 2월 기준)

구분	한국	중국	일본
기체결	아세안 10개국, EFTA 4개국, 인도, 싱가포르, 칠레, EU 27개국,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 등	홍콩, 마카오, 아세안 10개국,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코스타리카 등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아세안 10개국, 스위스, 베트남, 인도, 페루 등
	총 47개국	총 15개국	총 15개국
	건수: 10	건수: 9	건수: 13

자료: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FTA 종합지원포털(ftahub.go.kr); 한국무역협회, 『주요국 FTA 추진 현황과 2013년 전망-19개 경제권(68개국)을 중심으로-』, 2013, pp. 5-12.

IV. 중심지가 되기 위한 한국의 강점

4. 아시아 교통의 요충지

- 한국은 세계 제 2위 및 제 3위의 경제대국인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이들 두 나라들과 항공 및 해운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 있음.
 - 아시아의 허브공항인 인천공항은 기반시설 개선을 통해 아시아 정상급 경쟁력을 확보.
 - 인천공항은 또한 7년연속 세계우수공항상 수상 뿐만 아니라 태평양지역 최고공항 및 중대형규모 최고공항에 선정됨
 - 부산항은 2010년 1,400만 TEU의 화물량을 소화해내며 세계 5위권 항구로 급부상.
 - 이런점에 더해 한국은 유라시아 횡단철도의 동방기점이 될 가능성이 충분.

2011년 인천국제공항과 주요 아시아 국제공항 비교

(단위: 개, 명, %)

	인천(서울)	푸둥(상하이)	나리타(도쿄)
취항 항공사 수	70	67	63
취항 도시 수	176	90	98
환승객 수	566만	-	529만
환승객 비율	16	15.4	19

자료: 인천, 푸둥, 나리타공항 홈페이지

IV. 중심지가 되기 위한 한국의 강점

5. 부상하는 금융산업

- 서울은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평가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
 - 그러나 최근 세계금융위기중 취해진 각종 외환규제로 말미암아 2013년 9월 평가에서 10위까지 떨어졌으나 2014년 3월 평가에서는 7위로 다시 상승.
 - 2011년 한국 파생금융시장 거래량: 39억 건(3년 연속 1위)
 - 2011년 말 한국 채권시장 규모: 1조 2,290억 달러(홍콩: 1,685억 달러, 싱가포르: 1,894억 달러)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변화 추이

	2009년 3월	2010년 3월	2011년 3월	2012년 3월	2012년 9월	2013년 3월	2013년 9월	2014년 3월
1	런던	런던	런던	런던	런던	런던	런던	뉴욕
2	뉴욕	뉴욕	뉴욕	뉴욕	뉴욕	뉴욕	뉴욕	런던
3	싱가포르	홍콩	홍콩	홍콩	홍콩	홍콩	홍콩	홍콩
4	홍콩	싱가포르	싱가포르	싱가포르	싱가포르	싱가포르	싱가포르	싱가포르
5	취리히	도쿄	상하이	도쿄	취리히	취리히	도쿄	취리히
서울	53위	28위	16위	9위	6위	9위	10위	7위

자료: Z/Yen Group Limited, The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Vol. 5-13, March 2009-March 2014.

IV. 중심지가 되기 위한 한국의 강점

6. 수준높은 의료산업

- 한국의 의료산업은 우수한 인적자원과 장비를 갖춰 매우 경쟁력이 높음.
 - 의과대학 진학자는 수능성적 1%이내의 우수한 인재들이며 인구 천명당 의사 수도 높은 편임.

아시아 주요국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2010년 기준)

(단위: 명)

	OECD 평균	미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태국
의사 수	2.6	2.4	2.1	2.0	1.8	0.3

자료: World Data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OECD 보건지표 질지표에서 평가한 자궁경부암 5년 생존율(2004~2009년 기준) 한국의료산업의 경쟁력은 매우 높음.
 - 한국의 뇌졸중 치료성과 세계 1위.
 - 자궁경부암, 대장암 진료는 각각 2위, 5위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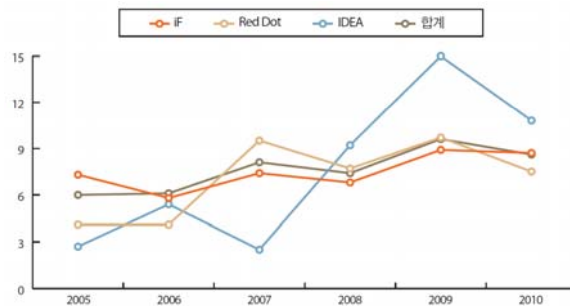
자료: OECD, Health at a Glance 2011, 2011.

IV. 중심지가 되기 위한 한국의 강점

7. 디자인 강국

- 경제가 발전할수록 부가가치가 높은 디자인산업이 중요해지는데 한국은 이미 많은 잠재력을 보유.
 - 국가디자인경쟁력조사에서 한국은 덴마크와 공동 8위를 차지.
 - 한국의 디자인 전문회사, 디자인기반센터수도 크게 증가.
 -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에서 한국의 수상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한국의 세계 3대 디자인상 수상 비율



자료: 지식경제부.

41

IV. 중심지가 되기 위한 한국의 강점

8. 세계로 뻗어나가는 문화산업

- '한류' 열풍에 힘입어 문화 콘텐츠 산업 규모와 수출은 꾸준히 증가.
 - 한류는 동아시아를 넘어 유럽, 북미 대륙까지 확산됨.
 - 한국은 출판, 방송, 광고, 게임, 만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산업을 보유하고 있음.
 - 영국 게임산업 경쟁력보고서에서 한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함.

국내 문화콘텐츠산업 매출 및 수출규모 추이



자료: 통계청, KOSIS.

42

IV. 중심지가 되기 위한 한국의 강점

9. 잠재력이 풍부한 관광산업

- 한국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유구한 역사 및 독특한 전통문화 등 풍부한 관광 잠재력 보유.
 - 한국으로의 관광객은 2003년 이후 해마다 증가해 2012년에는 1,100만 명을 돌파.
 - 국제적 위상이 높아져 국제회의 개최 건수도 2011년 469건으로 세계 6위를 기록.
 - 인구 100명 당 관광객 수가 20명에 불과하여 선진국과의 격차를 고려하면 전체 외국관광객 수는 향후 4-6배까지 증가 가능.

한국의 관광객 증가 추이

(단위: 천 명,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관광객 수	5,818	6,023	6,155	6,448	6,891	7,818	8,798	9,795	11,140
세계 순위	35	34	35	35	34	28	28	-	-
전년 대비 증가율	22.4	3.5	2.2	4.8	6.9	13.4	12.5	11.3	13.7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

43

IV. 중심지가 되기 위한 한국의 강점

10. 국제협력 및 외교 중심지

- 한국은 스위스, 네덜란드, 뉴욕 등의 경제 및 문화 중심지들처럼 아시아의 국제협력 및 외교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여건도 갖추어져 있음.
 - '한국형 발전모델'은 개도국들에게 모범사례로 꼽히며, 많은 국가들은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특히, 한중일 3국 중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기에 적합.
- 2010년 한국은 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 역할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2012년 제 2차 핵안보 정상회담을 주최.
- 경제발전 경험공유사업(KSP)을 통해 해외협력도 확대하고 있음.
 - KSP대상국은 2013년 현재 36개국까지 확대되었음.

2013년 현재 KSP 파트너 국가 현황

지역	국가 수	KSP 상대국가
아시아	12	스리랑카, 몽골, 미얀마,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중국, 태국, 카자흐스탄
중동	3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아프리카	7	알제리, 에티오피아, 가봉, DR콩고, 가나, 이집트, 탄자니아
중남미	10	브라질,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멕시코, 벨리즈, 볼리비아,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도미니카 공화국
유럽	4	러시아, 루마니아, 헝가리, 터키

44

V. 중심지 비전 달성을 위해 보강해야 할 과제

1. 시장경제원리의 강화
2. 대외개방 확대
3.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개선
4.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5. 벤처·청년창업의 촉진
6. 기술개발의 질적 수준 향상
7. 다극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대외관계 정립

45

V. 중심지 비전 달성을 위해 보강해야 할 과제

1. 시장경제원리의 강화

(1) 법치주의의 강화

- 법치주의 강화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함.
- 한국의 법치주의는 행정부의 과도한 권력, 법외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을 하려는 사회 풍토, 법문 내용의 모호성, 범죄수사의 비효율성 등이 문제.
 - 2005년 서울시 불법시위로 인한 사회적비용 13조 원.
 - 1991년이후 법질서만 잘 유지되었어도 GDP 성장률 1%p 추가상승이 가능했다는 연구결과도 있음(KDI).
- 해결책: 입법부·사법부의 입지강화, 법질서확립 노력, 과도한 위임입법의 자제, 검경분업제도의 재검토.

(2) 자유경쟁정책의 강화

-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경쟁국들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고, 특히 서비스업에 규제가 집중되어 있음.
- 시장 전반에 만연한 '좀비기업' 퇴출 시급.
- 경쟁촉진에 초점을 맞춘 공정위의 새로운 업무 지침도 필요.

46

V. 중심지 비전 달성을 위해 보강해야 할 과제

(3)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 개선

- 한국은 법인세율 및 개인소득세에 있어 경쟁국인 싱가포르, 홍콩에 비해 여전히 높음.
- 총 31개의 세목 역시 홍콩의 9개, 싱가포르의 8개에 비해 월등히 많음.
-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 자체에도 많은 문제가 있음.

납세이용성 국제순위 및 항목별 비교

(단위: 건, 시간, %)

	납세 용이성 순위	연간 납세횟수	연간 납세시간
한국	38	12	225
홍콩	3	3	80
싱가포르	4	5	84

자료: World Bank and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Doing Business 2012: Doing Business in a More Transparent World, 2011.

(4) 증장기 정책의 일관성 제고

- 대통령 5년 단임제로 인한 빈번한 정권교체로 인해 훼손되고 있는 증장기 정책의 일관성제고를 위한 제도개혁 시급.

47

V. 중심지 비전 달성을 위해 보강해야 할 과제

2. 대외개방의 확대

(1) 상품시장 개방 확대

- 제조업 상품 시장의 개방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농축산물시장의 개방은 여전히 제한적.
- 현재와 같은 농산물시장의 과보호는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해.
- 특히 농축산물 시장의 개방은 환경 오염 축소를 위해서도 시급.
- 농축산물에도 수입예시제가 도입 되거나 최소한도 긴급할당관세제도가 확대 되어야.

(2) 서비스시장의 적극적인 개방

- FTA로 인한 법률시장 개방은 법률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됨.
- 의료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위해 의료의 영리성을 부정하고 시장원리 도입을 제한하는 현행 의료정책을 개편해야.
- 우수한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해 국내 교육기관과 경쟁을 유도하고 동시에 유학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향유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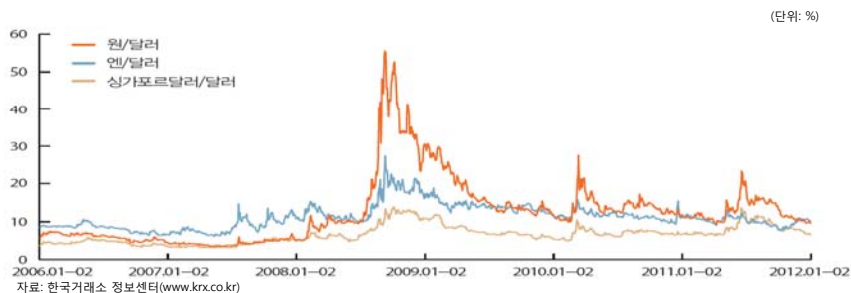
48

V. 중심지 비전 달성을 위해 보강해야 할 과제

(3) 외환시장의 선진화

- 원화의 태환성 부재와 원화의 해외 사용금지로 인해 경제규모에 비해 외환시장 규모가 너무나 협소 - 선진국의 약 1/5 수준.
- 협소한 외환시장은 해외자본의 사소한 유출입에도 원화 가치가 지나치게 변동하는 결과로 실물경제에도 악영향.
- 해결책: 원화의 해외사용 허용 및 자본거래 규제 조기철폐.

원/달러, 엔/달러, 싱가포르달러/달러의 환율변동성 추이



49

V. 중심지 비전 달성을 위해 보강해야 할 과제

3.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1) 국내대학의 국제화 제고

- 국내대학은 우선 영어교육을 강화하고 우수한 외국인교수 채용을 통해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미래지도자를 배출 해야.
 - 홍콩대, 홍콩과기대 및 마스트리히트 대학의 국제화 성공사례 참고 필요.
- 한국 대학의 외국인교수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문성도 부족.
-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이긴하나 아직까지 비아시아계 학생 유치에는 미미한 성과.

(2) 대학의 창의적인 연구능력 제고

- 피인용 상위1% 논문 수, 특허영향력 평가 등을 통해 본 국내대학의 연구능력 제고노력은 크게 미흡.
 - 전체대학의 피인용 1% 논문 수는 1,509건으로 세계 1위인 하버드대학과 비교해도 31%에 불과.
 - 경제규모가 작으면서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스위스 대학 등을 참고해야.
-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위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박사과정생에 대한 지원강화 그리고 해외 고급인력 유인 확대에 더 힘써야.

50

V. 중심지 비전 달성을 위해 보강해야 할 과제

(3) 새로운 노동시장 수요에 맞춘 인재 양성

- 기업이 원하는 인재와 대학이 배출하는 인재의 심각한 불일치로 큰 사회적 낭비발생.
- 대학이 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 산업과 대학간의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 개발이 필요하며(예: 삼성전자-성균관대학교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 노동시장수요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주는 대학평가제도 도입도 필요.

(4) 대학 운영의 독립성 확보

- 대학 교육기관의 지배구조 개선은 이상 제기된 문제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
 - 국립대학법인화의 확대.
 - 개방적인 독립이사회 구성 및 이사회 권한 강화.
- 대학평가 현재처럼 교육부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대학협의회 및 언론기관 등이 주 역할을 담당해야.

V. 중심지 비전 달성을 위해 보강해야 할 과제

4.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1)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현재 극단적으로 경직된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를 고착시켜 소득 격차 확대와 청년 실업증가 등으로 우리경제 성장잠재력 잠식.
-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유럽 여러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Flexicurity"와 시간제 급여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 Flexicurity제도하에서 피고용자는 고용의 유연성을 받아들이고 재취업교육을 받을 의무를 진. 정부는 실업기간동안 실업자의 소득안정을 보장하고 재취업교육을 지원함. 기업은 노동시장 유연성 증가에 따라 늘어난 수익중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결과 삼자 모두에게 "win-win"하는 결과를 가져옴.
 - 시간제 급여의 도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을 없애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

고용과해고의 유연성 국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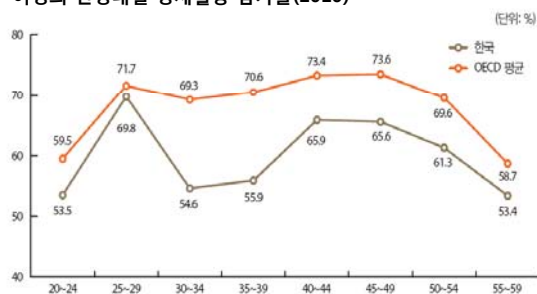
자료: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2-2013, 2012, p. 470.

V. 중심지 비전 달성을 위해 보강해야 할 과제

(2)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촉진

-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가장 주요한 해결책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
 - 2010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한국 54.5% vs OECD 61.8%.
- 특히 30대 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이 경제활동참가율 저하의 주 원인.
 - 시간제 근로 도입을 통한 여성의 근로시간 단축 및 재량 확대로 "일과 생활의 균형(WLB)" 달성.
 - 공공보육서비스 확대를 통한 자녀양육부담 완화.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 참가율(2010)



자료: OECD(stats.oecd.org).

53

V. 중심지 비전 달성을 위해 보강해야 할 과제

(3) 은퇴제도의 개선

- 한국은 은퇴연령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고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생산직 숙련기술인력의 부족이 큰 문제로 대두.
-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유연한 퇴직제도를 도입하며 임금피크제를 확대해야.

(4) 사회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모병제로의 전환

- 50년대 노동력 과잉해소 및 미군과의 분업을 위한 노동집약적 군대 운영인 징병제는 그 취지가 현재 타당하지 않음.
- 모병제를 통해 전문군인 양성과 청년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동시에 달성해야.

(5) 이민수용을 통한 해외 인적자원의 활용 확대

- 한국의 체류 외국인 수는 매우 적고 특히, 외국전문인력 유입이 미미.
- 우수한 해외인력 유치를 위해 이민정책을 총괄할 이민청 신설을 가능케 하는 이민법 제정이 시급.

54

V. 중심지 비전 달성을 위해 보강해야 할 과제

5. 벤처·청년창업의 촉진

- 한국은 벤처창업에 유리한 잠재요소를 갖춤.
 - 우수한 인력과 하이테크 산업기술 보유.
 - 정부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주요 단계 및 요소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1) 벤처기업/기업가

- 대학의 기업가정신 교육.
- 벤처 인큐베이션 시스템 도입.
- 창업자의 실패에 대한 안전장치.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이상적인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



자료: 양현봉·박종복,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2011을 참고하여 도시화했음.

V. 중심지 비전 달성을 위해 보강해야 할 과제

(2) 벤처캐피탈/엔젤펀드

- 정책자금 중심의 현행 벤처투자에서 탈피하고 민간중심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도모해야.
 - 금융기관의 담보대출관행을 기술력 및 성장성 중심의 대출관행으로 대체.
 - 중소·벤처기업 전문 자본시장 설립 및 활성화.
 - 네트워크 용자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대기업간 기술협력 촉진.
 - 중소기업은행과 중소기업청의 역할 재정비 - 캐나다 BDC 사례 참고 필요.

(3) 자금회수시장

- 벤처생태계가 자생하기 위해 필수적인 회수시장의 발달에 정부가 힘 써야.
- M&A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영문화의 특수성 역시 발상의 전환이 필요.

V. 중심지 비전 달성을 위해 보강해야 할 과제

6. 기술개발의 질적 수준 향상

- 기술개발에서 한국은 양적투입, 성과, 물적 인프라 면에서 상위권이지만 국내외 협력 및 연구성과의 질에서 매우 낮은 순위임.
 - 기술개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핵심 기초·원천기술 확보가 필요.
- (1) 기초과학/원천기술 역량의 강화
 - 기존의 따라잡기식 기술개발은 더 이상 경제성장에 유효하지 않음.
 - 오히려 중국의 기술 따라잡기에 한국은 주력산업분야에서 도전받고 있음.
 - 정보기술, 생명기술, 나노기술, 에너지기술 등 기초·원천기술을 확보해야.
- (2) 기술사업화 촉진
 - 사업화비율이 낮은 상태에서 연구개발은 결국 자원낭비.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비율: 한국(27%) 미국(35.9%) EU(46.8%).
 - 기술사업화에 대한 자금,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지원정책이 체계화 되어야.

57

V. 중심지 비전 달성을 위해 보강해야 할 과제

(3) 글로벌 기술협력 네트워크 강화

- 미국 등 기술선진국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세계 유수대학과의 학술교류 확대 및 연구프로그램 국내 유치.
- '국제협력국' 역할 확대를 통한 국제기술협력전문가 양성.
- 중소기업의 글로벌 협력역량 강화.

(4) 새로운 과학기술 관리체계의 수립

-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 기존의 수직적 기획조정·통제방식을 지양하고, 일선현장의 의견과 시장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야.
- 과학기술혁신의 불확실성, 복잡성을 극복할 여러 분야의 협력이 필요.
 - 각 분야 전문가의 창의성을 끌어내고 협력을 도출할 수평적 정책결정구조가 필요.

58

V. 중심지 비전 달성을 위해 보강해야 할 과제

7. 다극화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대외관계 정립

(1) 대중관계

- 중국은 팽창적 외교전략을 토대로 주변국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데, 미국의 Pivot to Asia 정책과 맞물려 동북아시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음.
- 경제 면에서도 심화되고 있는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위해 거래다변화를 추진해야.
- 북한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의 협조를 통한 북한개방이 극히 중요.

2011년 국가별 군사비 지출 순위

(단위: 2010년 불변가격, 백만 달러)

세계순위	국가	2000(A)	2005	2010	2011(B)	(B)/(A)
1	미국	382,061	562,039	698,281	689,591	1.8
2	중국	33,496	64,726	121,064	129,272	3.9
3	프랑스	57,619	61,058	59,098	58,244	1.0
4	영국	44,307	53,676	58,099	57,875	1.3

자료: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milexdata.sipri.org).

59

V. 중심지 비전 달성을 위해 보강해야 할 과제

(2) 한미관계

- 중국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과 향후 상당기간 동안 미국이 강대국의 지위를 누린다는 전망 하에 한미관계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이 여전히 중요.

(3) 한일관계

- 과거사 및 독도문제 등으로 긴장관계에 놓여 있지만 지역평화유지 차원에서 한일 양국이 장기적으로 협력해야.

(4) 대북정책

- 군사면에서 핵개발로 맞대응 하기 보다는 재래식 전력 강화에 힘써야.
- 동시에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교류를 넓혀나가야.

(5) EU와의 관계

- 경제적 강점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앞선 경험을 가지고 있어 EU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야.

(6) 신흥국과의 관계

- 잠재력이 풍부한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관계구축에 특히 유념해야.

60

V. 중심지 비전 달성을 위해 보강해야 할 과제

(7) 다극화 시대의 통상정책

- GATT와 WTO로 이어지는 다자주의 무역체제는 한국에게 큰 이득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더 이상의 진전이 어려움.
- 한국은 대안으로서 다수의 FTA를 체결하는 등 비교적 통상정책을 잘 수행해왔음.
- 향후 중요한 의제는 한중,한일 양자 FTA보다는 한중일 삼국FTA를 체결하는 것과 TPP 참여임.

(8) 다극화 시대의 원화정책

- 세계은행은 2025년경 기존의 달러 이외에, 유로, 위안화 세 종류의 국제통화가 통용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러한 다극화된 환경이 개도국들에게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측.
- 위안화 국제화에 대비하여 한국 역시 원화의 국제화를 서둘러 실천해야.
- 원화 국제화에 대하여 일부 우려가 있으나 국제화를 통해 얻는 편익이 더 큼.

61

VI. 맺음말

- 이상 제시한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및 문화중심지 패러다임의 실현은 얼핏 보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보여질 수 있음.
- 그러나 그 내용의 대부분은 한국이 지난 50년간 추구해온 시장경제 창달과 대외개방 정책의 연장 선상에 있는 것임.
- 따라서 제시된 경제 및 문화중심지 전략과 목표는 한국이 충분히 실현할 수 있어 지난 50년에 이어 향후 50년에도 제 2의 경제기적을 이룩할 수 있음.

62

감사합니다

63